

동계체전 화제

- 전남 첫 금…화순초등 스기부

눈 없는 맨땅에서 롤러스키 타고 훈련

한국판 ‘쿨 러닝’ 탄생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화순초등학교 스기부가 제 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초등부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지민(여·6년)은 21일 강원도 용평고령지농업연구소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여초부 스기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 결승에서 10분 48초 8위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기도 없어 빌려서 출전

김지민의 금메달은 지난 1993년 74회 대회부터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선수단의 초등부 역대 첫 금메달이다.

같은 학교 김현민(6년)도 남초부 스기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 결승에서 10분 02초 7위 기록을 작성하며 동메달을 보탰다.

이외에 화순초등학교 스기부는 지난 12일 강원도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제37회 회장배 전국스기대회 초등부 클래식부분에서 이원태(4년)와 이예린(여·5년)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단체전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동계체육 불모지인 전남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창단 7년 만에 놀라운 성과

자마이카 볼슬레이팀의 1988년 칼거리 동계올림픽 출전을 다룬 영화 ‘쿨 러닝(Cool Running)’의 한국판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화순초등학교 스기부의 선전은 스기장 시설은 고사하고 제대로 눈 조차 오지 않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

여서 더욱 값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열악한 지원으로 스기장을 가지 못해 롤러스키로 지상에서 연습을 했으며 개인 스기장비가 없어 전남스키협회에서 스기장을 빌려 대회에 출전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메달을 획득해 스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열대의 나라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이예린, 고재민, 이원태, 김성빈, 김태영 인턴코치, 이원지, 김지민, 김현민, 김한비, 이재양 감독.

/용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현신적인 노력이 밀밭침 돼 있다.

복싱선수 출신인 이 교사는 지난 2000년 화순초등학교에 부임한 뒤 육상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스기를 지도해 7년만에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스기부 창단 당시 주변에서 “눈도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스기부를 운영하느냐”며 꼽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도 학생들에게 새

로운 경험과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꿋꿋이 밀고 나갔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희망

이번 체전을 대비해 약 70일간의 전지훈련을 하면서도 전남도교육청, 화순교육청, 전남스키협회의 지원과 함께 자신의

사제를 털어 겨우겨우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이재양 교사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전남에서 학생들에게 스기를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며 “중학교에 스기부가 없어 연계육성이 어려워 우수한 선수들이 사장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화순초등 김지민 첫 금

전남 초등부 역대 동계체전 사상 첫 쾌거

여초부 스기 크로스컨트리 3km

김지민(여·화순초등 6년·tkwls)이 전남에 스기 크로스컨트리 초등부 역대 동계체전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지민은 21일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첫날 용평고령지농업연구소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스기 크로스컨트리 여초 클래식 3km에서 10분 48초 8위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김현민(화순초등 6년)은 스기 크로스컨트리 남초 클래식 3km에서 10분 02초 7로 동메달을 따내 전남 선수단의 7위 목표달성을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기대했던 스기 알파인에서 단 한명의 선수도 순위권 밖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는 지난 2005년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3년만에 컬링에서 문성고 선수들이 첫 승을 거두며 선전했을 뿐 다른 종목에서 메달획득에 실패했다.

이날 문성고는 경북의성에서 열린 컬링 남고 경기에서

전남의 광양실업고를 7-6으로 누르고 값진 첫승을 올렸다.

한편 22일 광주와 전남은 본격적인 메달레이스를 시작한다. 광주는 크로스컨트리 남자대학부 40km 계주와 빙상 쇼트트랙 남자대학부 1천500m의 이성훈(한국체대 4)에게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여자일반 15km 계주에 나서는 동신대와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 40km 계주, 여자일반 15km 계주팀이 최소 동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빙상 피겨 싱글 D조의 임유래(동신대)는 쇼트프로그램 예산에 출전해 3연패를 향한 힘찬 첫발을 내딛는다.

/용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찬·호

“베이징올림픽 때 대표팀서 뛰겠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메츠맨으로 새롭게 거듭난 ‘코리안특급’ 박찬호(34)가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고 밝혔다.

스프링캠프인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시에서 훈련 중인 박찬호는 21일(한국시간) 인터뷰에서 “나라에서 불려준다면 올해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예선전부터 참가하고 싶다”며 출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박찬호는 또 “WBC에서 한국의 선수들과 4강까지 올라 정말 좋았다. (이번에도) 그 느낌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외파 중 맏형인 박찬호의 대표팀 출전 의사가 이승엽(요미우리), 이병규(주니치), 서재웅, 최희섭(이상 텁파베이), 김병현(콜로라도) 등 해외파 후배 선수들의 연세 참가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운동원(전 OB 감독)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은 전직 감독보다 현역 감독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달 15일까지 감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드립팀 선수 구성과 관련, “메이저리거는 모두 대상이다. 스프링캠프 기간 기술위원을 미국 현지에 보내 참가 의사를 물어볼 생각이다. 일본은 22일 기술위원들이 국내 선수 컨디션 점검차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이승엽과 이병규의 의사 확인할지 아니면 나중에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윤창(광주스키협회)이 21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동계체전 스노보드-일파인 대회전에서 기문을 들고 있다.

/용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용인시청, 대구시청 제암

핸드볼 큰잔치

용인시청이 2007 SK 핸드볼큰잔치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대구시청을 잡고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용인시청은 21일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핸드볼큰잔치 2차 대회 여자부 2차전에서 권근혜(8골)의 득점포가 불을 뿐이 지난 대회 웹피언 대구시청을 25-23으로 제압했다. 경기 초반 끌려가던 용인시청은 전반 15분 권근혜의 슈팅이 그들에 맞아 5-5 동점을 만들 뒤 김정심과 김부자가 득점에 가세, 전반을 14-11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용인시청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줄곧 리드를 유지했고 후반 11분에는 김부자가 득점에 성공하며 19-14로 점수 차를 벌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 효명건설은 에이스 우선희가 빠진 삼척시청을 23-19로 가볍게 꺾었다. 효명건설의 국가대표 라이트백 명복희는 7골을 몰아넣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부산시설관리공단(이하 부산시설)은 6골을 넣은 김경미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체대에 19-17로 2점 차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진출 희망을 살렸다.

여자부에서는 효명건설과 삼척시청, 대구시청이 나란히 3승1패씩을 기록하며 준결승 진출 티켓을 따냈고 나머지 한 장은 용인시청과 부산시설이 23일 마지막 경기에서 다투게 됐다.

이승엽, 내달 시범경기 대비 막바지 훈련

스프링캠프 막바지 훈련에 접어든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월 9일 규슈 후쿠오카현 야후드에서 벌어지는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시범경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즌 맞이에 나선다.

캡포가 차려진 일본 미야자키의 선마린 스타디움에서 전후 중인 이승엽은 22일 마지막 청백전을 치른 뒤 지난달 별세한 어머니의 49재를 위해 이날 일시 귀국한다.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21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이 26일 일본에 돌아오고 3월 3일 소프트뱅크전에서 요미우리 4번 주포의 위상을

역할 중심 타선을 보유했다고 평가 받는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3~4일 이틀에 걸쳐 시즌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이 흥미롭다.

요미우리와 소프트뱅크의 겨우 전쟁이 판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은 자명하다.

20일까지 세 번의 청백전에서 아직 홈런을 신고하지 못한 이승엽은 22일 마지막 실전 게임인 청백전에 나선다. 3월 30일 개막전에 맞춰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이승엽이 다른 팀과 처음으로 맞붙는 3월 3일 소프트뱅크전에서 요미우리 4번 주포의 위상을 한껏 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승엽이 지바 롯데 시절부터 후쿠오카 야후드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징크스도 극복할 수 있을지 목이 쓰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